

영화 <기적>

오디션 대본

-성인 여자 20대-

-영화 <82년생 김지영>의 “지영” 역을 연기해주세요.

1. 지영의 집 앞 카페 . 낮

혜수가 트레이에 커피와 케익을 받는다. 뒤에 서있는 지영과 걸어간다.

지영 일요일인데 나한테 시간 줘도 돼?
혜수 응. 물론. 바쁜 건 너지. (안색을 살피며) 어디 아파?
지영 아니. 아파 보여?
혜수 까칠한데?
지영 요즘 좀 그래.

둘은 자리에 앉는다.

혜수 말해. 뭐야?
지영 언니.. 나 아무래도 김팀장님 회사 못 갈 거 같아.
혜수 왜? 애기 때문에?
지영 응. 아영이 맡길 데도 마땅치 않고...
혜수 대현씨는 뭐래?
지영 아니 오빠는 육아휴직 내겠다고 했는데.
혜수 그래! 그럼 되겠네.
지영 (허탈하게 웃는) 근데 시어머님이 절대 안 된대.

혜수, 화가 난다. 차를 몇 모금 말없이 마신다.

혜수 아, 답답하네. 야, 대현씨보고 시어머니 설득하라 그래.
 유럽은 아빠가 육아휴직 받는 케이스 많아!
지영 여긴 유럽이 아니잖아...

쓴웃음을 짓는 지영. 혜수는 점점 더 화가 난다.

혜수 지영아. 이거 불공평한 거 아냐? 너도 니 남편만큼 공부도 하고 사회생활도
 했는데? 그래, 임신은 어쩔 수 없다해. 아니, 육아는 나눠야 되는 거 아냐?
지영 언니, 그게 말처럼 쉬워? 시어머니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지 뭐.
 내가 나가서 오빠만큼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대출금도 남아있고.
 내가 번 돈, 아영이 어린이집이랑 베이비시터 월급주면 모자랄 수도 있어.
혜수 야,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니 인생에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끝까지 지켜
 내야지!

지영이는 참아온 화가 난다. 최대한 자제하지만 차가워진 목소리.

지영 언니 나두 알아.
혜수 너, 알면서도 안하는 건 비겁한 거다.
지영 언니도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해봐. 대부분의 애기 엄마들은 쉽지 않아! 그런 사람들을 누가 비겁하다고 말 할 수 있어! 있잖아... 난 요즘... 언니 만나면 기분이 엉망이야. 내가 아무 생각 없는 사람 같고, 완전히 잘 못 살고 있는 거 같아.

혜수는 지영이의 분노에 말을 멈춘다. 가만히 지영이를 보는 혜수.

지영 미안.... 괜히 언니한테 화냈다. 화가 막 나는데... 어디다 화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어.
혜수 아니야. 내가 미안해. 제일 답답한 건 너데...

혜수, 차를 몇 모금 말없이 마신다.

혜수 내가 요즘 많이 예민해.
지영 ...
혜수 지난번 몰카 사건, 제대로 해결 안되고 결국 피해자들만 퇴사했어.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나두 곧 그만둘 거 같아. 김팀장님이 나 받아줄까?

쓴웃음을 짓는 혜수. 바라보는 지영.

2. 지영의 집 거실 . 밤

지영이가 안방에서 나온다. 대현은 설거지를 마치고 물을 마신다.
식탁에 마주 앉은 부부. 지친다.

대현 (물 한 잔 내주며) 자?
지영 응. 잠투정이 늘었어.

서로 말이 없는 부부.

지영 나 김팀장님 만나서 얘기하려고. 회사 나가는 거... 어려울 거 같다고.
대현 (안타깝다.) 방법을 더 찾아보자니까.
지영 없잖아.

대현, 딱히 대안이 없어 입술만 달짝...

지영 복직하기도 전에 지쳐. (쓱쓱하게 웃는다.)
대현 그래. 좀 더 쉬자. 너도 더 쉬고 아영이도 크면 나아질 거야.

대현이 그렇게 말하니 막상 지영이는 매우 서운하다.

지영 애 보는 거 쉬는 거 맞아?

웃는 지영. 서글퍼서 웃음만 나온다.

대현은 지영의 입가에 걸린 답을 찾지 못하는 비소와 눈빛을 느낀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 같다. 하지만 지영에게 아무 말해 줄 수 없는 대현.

대현 내 말은...

지영 (욕하는 걸 꾸역꾸역 눌러보지만 감정이 격해온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있잖아. 자꾸 억측만 들어. 오빠도 어머니처럼 속마음은 내가 일하겠다고
나가는 거 싫은 거 아닐까. 육아휴직 한다고 큰소리치고 후회하는 거 아닌
가.

대현 지영아.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육아휴직 하는 거 어렵게 생각 안 해.
난 진짜 너 생각해서 그런 거야...

대현은 본심을 보여 줄 수 없고, 지영은 본심을 알 수 없으니 오해가 깊어진다.

지영 내 생각해서 그렇다는 말 좀 그만해! 솔직히 믿어지지도 않아.
어머니도 오빠도 우리 가족들도 다 똑같아.
어차피 한 치 건너 일이라고! 나만 전쟁이야... (울컥)

지영은 지금까지의 속상한 일들이 한 번에 터지면서 격앙되고 대현은 더 물러날 곳을 잃어 사실을 말하게 된다.

대현 너 지금 아파.

지영은 뭐라는 건가... 미안해서 할 말 없어서 저러나...

지영 그렇게 생각하면 오빠 맘이 편해? 내가 도대체 어디가 아파? 어?

대현 지영아. 맘 차분하게 갖고... 내 말 잘 들어...

지영, 왜 이러나. 뭐가 있긴 있는 건가...

대현 너 정신과 가보라고 했었잖아...?

지영 (불길하다....)

대현 니가 좀.... 아파 지금.

지영 무슨... 소리야?

대현 (후....) 지난번 명절 때 부산에서... 우리 도망 나오듯이 나왔어.

지영 무슨 말이야... 난 하나도 기억 없는데...!!

대현,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자신의 핸드폰을 내민다.

바라보는 지영.

대현이 입을 연다. 대사는 들리지 않는다. 심각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는 대현의 모습이 그려진다. 듣고 있는 지영은 처음엔 의아하고, 이어 기가 막히고, 점점 패닉이 되어간다.

지영이는 남 이야기 들듯 놀라기도 하고 기가 막혀 헛웃음도 나오다가 이내 차분하게 듣고 눈물이 툭 떨어지는 걸 속 닦고는 또 듣고, 지영, 급기야 별떡 일어나 창가에 선다.

호흡이 거칠어진다. 그러나 신음 하나 내지 않고 어두운 창밖만 바라보는 지영.

지영 엄마 알아?

대현 ... 응.

지영의 눈이 흔들린다. 엄마가 얼마나 걱정할까. 엄마 생각에 참아오던 눈물이 흐른다.

너무 많이 흐르는 눈물에 닦지도 못하고 입술이 파르르.

대현 앞에 와서 앉는 지영.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는 지영.

지영 나 뭐하면 돼? 치료받으러 가면 되지? 병원에 다시 연락해 줄 수 있어?

지영은 차분하게 대처한다. 그래서 대현은 마음이 더 아프다.

지영 아영이가 아직 어려서 다행이다. 철 들었으면 나 이상할 거 아냐.

대현 자주 그러지 않아. 아주 가끔...

쓴 미소를 짓는 지영. 이제 울지도 않고 착잡해서 한숨도 짓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쓴 미소를 짓고, 눈만 여러 번 깜박이며 눈물을 말릴 뿐.

지영 (고개 숙인 대현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고생했겠다. 오빠.

대현, 무너진다.

대현 미안해...

지영 오빠가 왜...

대현 (눈물이 섞여 그동안의 걱정과 설움이 터진) 나는... 너... 잘못될까 봐...

(울음 섞인) 너... 나랑 결혼해서... 나 땀에 아픈 거 같아서...

차마 말 더 못하고 어깨가 흔들리도록 우는 대현.

지영, 대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다.

3. 벽화길 . 낮

은영이와 지영이 나란히 걷는다.

지영 출국 준비로 바쁘는데 뭘 여기까지 왔어.
은영 이 근처에 볼일이 있었다니까. 기분 어때? 정신병 걸리니까.
지영 으하하하 (주머니에서 만년필 꺼내며) 짜잔~! 받아냈어.
은영 잘했다. 왜 이렇게 이거에 집착했어?
지영 그냥... 이걸 가지면 뭐든 잘 될 것 같았어.
은영 잘 되든?
지영 글쎄 모르겠어.
은영 잘 될 거야.

둘이 웃는다.

은영 (지영을 아프게 바라보며) 나 가지 말까? 내년으로 미룰까봐.
지영 언니. 그러지마. 난 언니가 세계지도에 스티커 붙여놓은 데 다 가는 거 보고 싶어.
은영 야, 대리만족하지 말고, 셀프만족해라.
지영 난 선생님이 위인들 적으라고 그러면 세종대왕, 이순신 이런 분들 말고, 언니 이름 적었는데.
은영 하하하! 할아버지들 이긴 거 좋아해야 해?

웃다가 은영 갑자기 지영을 안는다.

은영 내 동생... 아프지마.
지영 언니... 걱정마. 난 엄청 씩씩해. 난 엄청 목소리도 크고, 엄청 잘 달리고, 엄청 힘도 세. 엄청 밝고, 누가 와도 다 물리칠 수 있어. 난 건강해...

지영의 말에 연신 고개를 끄덕대는 은영.